

말씀 따라 구원도, 변화도, 형제도, 사명도, 휴거도 좌우된다 (말씀의 가치와 결과)

본 문 창세기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5절

* 사회자는 말씀의 주제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설교자가 영상에 맞춰 주제를 말해 주며 다 같이 주제를 외치게 함.

* 이 말씀은 작품 설교다.

모두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늘 말씀을 중심한 신앙을 넣어 주게 하자.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영상1>

말씀 따라 구원도, 변화도, 형제도, 사명도, 휴거도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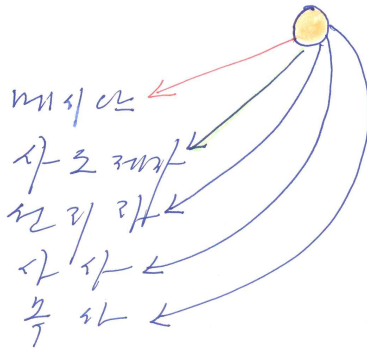
(말씀의 가치와 결과)

먼저 오늘 말씀의 방향을 말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은 ‘말씀의 가치와 결과’ 입니다. <말씀 내용>에 따라 하나님과 성자 앞에 신부로 대우받느냐, 아들이나 형제로 대우받느냐, 종으로 대우받느냐 (손바닥으로 위, 중간, 아래를 표현하며 ‘신부’는 가장 위를 치면서 말하고, ‘형제’는 그다음을 치면서 말하고, ‘종’은 가장 아래를 치면서 말한다) ‘구원의 차원’ 이 좌우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영의 형제도 좌우되고, 휴거도 좌우되고, 사명도 좌우됩니다. 이 말씀은 섭리사 핵심 교리 중 하나로서 완전하게 알고 외쳐야 할 말씀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하나님과 성자는 ‘사명’ 대로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아인지, 사도나 제자인지, 선지자인지, 사사인지, 목사인지, 강도사인지, 전도사인지, 평신도인지, 초신자인지, 그 사명에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영상2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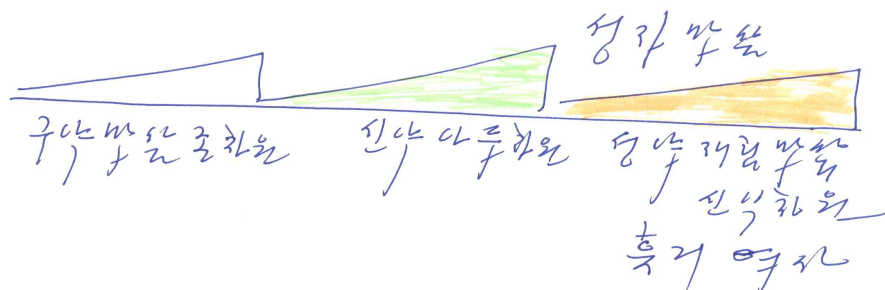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천국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인 구약시대에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다르고, 성자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역사하신 때인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성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시대 구원자를 그 육신으로 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차원이 다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말씀 내용>에 따라 구약 - 신약 - 성약으로 나뉘어져 시대도 다릅니다. <말씀 내용>에 따라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종으로 대해 주시느냐, 아들이나 형제로 대해 주시느냐, 신부로 대해 주시느냐 하는 ‘구원의 차원’이 좌우됩니다. 고로 ‘영의 형제’도 좌우되고, ‘휴거’도 좌우됩니다.

니다. <말씀 내용>에 따라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가까이 대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랑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자의 최고의 위력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높이 든

다) 만일 ‘성경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지구 세상에 믿고 사는 자들의 수가 이같이 번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샤머니즘 종교같이 교리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시하며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지금도 예배 때 돼지를 잡고 과일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은 샤머니즘 종교인들과 같습니다. 고로 불교나 다른 우상 종교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영상3 끝>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생도 창조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혼도 영도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로 변화시키고 부활시켜야 됩니다. (손을 양 옆으로 높이 들면서 ‘천지 만물 창조’ / 손으로 설교자 자신을 가리키며 ‘사람 창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말씀>과,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 말씀>은 너무 차이가 나게 다릅니다. <구약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비교가 안 됩니다.

구약 때는 종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면, 신약 때는 예수님이 아들 사명을 가지고 왔기에 누구든지 그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그 말씀

을 듣고 행한 자들은 신약 아들급 구원을 받고 아들의 권세를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우측 강도
에게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눅 23:43).” 한 대로 낙원급 천
국으로 가게 됩니다.

신약 구원의 한계는 <낙원급 구원>입니다. 곧 과정적 구원으로 <신
광야급 구원>입니다. 신약급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역사 전체를 볼 때 완
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 신약 - 성약으로 차원을 높여
점진적으로 구원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그대로 믿
어야 됩니다. (아멘.)

* 지금부터 십리사 핵심 교리 중 하나로서 완전하게 배우고 알고 외
쳐야 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4> ★ 중요 영상

신약시대에 하늘의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서 행하셨습
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이 죽기 전에 그 입을 통해 “내가 세
상에 다시 온다(요 14:18).”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다시 온다.” 하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행 1:11).

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들급으로 살면서 예수님
의 재림을 희망으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재림의 소망’ 입니
다.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
으니,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릇 알고 기다립
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격인 하늘의 성자가 천국에서
‘영체’로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 성자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요한
복음 3장 16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
내셨습니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땅의 나사렛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님을 똑같이 아들이라 칭하고, 성자와 똑같

은 이름을 주고 기르셨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독생자인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을 믿으면 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하고 신약 말씀을 전하시며 아들급 구원역사를 펴 나가셨습니다.

재림 때는 신약시대와 다른 주관권이라서 하늘의 성자가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되 영체이니 또 땅에 합당한 자, 곧 신부로 준비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십니다.

성자가 ‘신랑’으로 오셔야 신약 2000년 동안 희망으로 재림을 기다린 신약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부가 되어 신부로서 성자를 맞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발달되었는데 성자께서 2000년 전과 똑같이 ‘아들’로 오시면, 재림을 맞는 자들의 희망이 신약시대 차원과 똑같습니다. 성자가 ‘어떤 사명’으로 오시는가에 따라 그를 맞는 자들의 상대적 차원이 좌우됩니다. <영상4 끝>

(*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영상5> ★ 중요 영상**

재림 때는 성자가 하늘에서 ‘신랑’으로 오시면, 이 시대 중심 사명자를 구원자로 택하여 땅에서 신부로서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그가 먼저 성자를 신랑으로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먼저 땅의 구원자를 맞아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그를 통해 성자를 신랑으로 맞게 하십니다.

전능자 신은 항상 땅의 육신을 쓰고 오십니다. <구약 모세 때>는 모세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를 구세주로 삼고 역사하셨습니다. <성약 재림 때>는 성자가 다시 오셔서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 시대에 가장 합당한 자를 세워 그 육신을 쓰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육의 몸을 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아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는 비유’에 대해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재림 때 이를 비유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 날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중의 다섯 명의 처녀는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못 맞고, 나머지 다섯 명의 처녀는 지혜로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재림 때를 두고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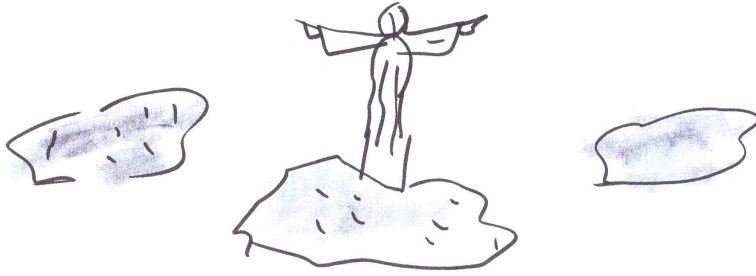
‘그 날’은 재림 때입니다. ‘신랑’은 재림 때 성자가 땅에 세운 자입니다. ‘기름’은 시대 말씀입니다. 재림에 해당되는 시대 말씀을 듣고, 재림 때 성자가 땅에 세운 자를 맞으면, 하늘에서 다시 오신 성자 본체를 신랑으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영상5 끝>

★ 미련하면 새 시대를 못 맞고, 그 시대에 성자가 세운 자를 못 맞습니다. 그러므로 시대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성자를 못 맞습니다. 고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시대 말씀은 그 시대에 성자가 보낸 구원자가 전합니다. 시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땅의 구원자를 맞은 것이고, 보이는 땅의 구원자를 맞은 것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늘의 성자를 하나님과 함께 맞은 것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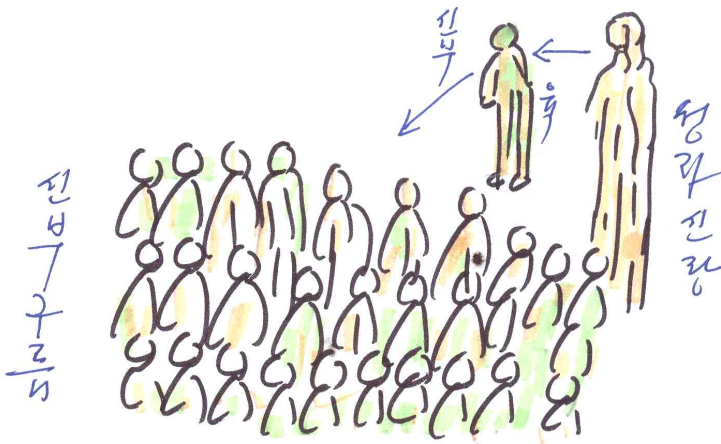
★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잘 알고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시대 땅의 구원자를 맞고, 그로 인하여 성자 본체를 맞기 바랍니다. 선생도 지혜로워서 성자를 신랑으로 맞았습니다. 알면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처녀는 ‘알아서’ 쉽게 맞고, 다섯 처녀는 ‘몰라서’ 못 맞았다고 비유로 말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배워야 지혜로워집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구름’을 하늘 흰 구름으로 풀고, 재림 때 인자는 하늘 흰 구름을 타고 온다고 성경을 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아서 성자 주님이 다시 오셔도 맞지 못합니다.



‘구름’은 깨끗한 자, 곧 깨끗한 사람을 두고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물이 햇볕에 의해 하늘로 증발하여 정화된 후에 깨끗한 구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삶으로 정화된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끝>



재림 때 성자가 다시 오셔서 그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온전한 말씀을 듣고 시대를 바로 알고, 시대 말씀과 보낸 자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가 곧 ‘정화된 깨끗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타락된 자를 ‘더러운 물’로 비유했습니다. 더러운 물이 하늘로 증발하여 정화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듯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이 태양 같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화되어 깨끗한 인간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주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들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한 것입니다.

주는 세상에서 막 살면서 타락된 자들을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신부로서 구원할 수가 없고 휴거 역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며 자기 죄를 회개하여 의롭게 된 자들을 타고 오십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때도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온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했습니다.

‘인자’ 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신약 때 인자는 마리아의 몸을 타고 온 자, 청중 구름을 타고 온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님’ 입니다. 하늘의 성자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여 그를 그 시대 메시아로 삼고 신약 구원 역사를 펴 나가셨습니다. 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가 전하는 새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그 시대 인(人) 구름이 되었습니다. <영상7 끝>



히브리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르며 증거하는 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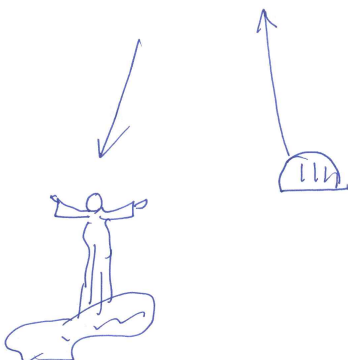
‘구름’ 이라고 했습니다. → 이 말씀을 볼 때, <신약 때>도 메시아가 타고 온다고 한 ‘구름’ 은 ‘사람’ 으로 풀어졌습니다.

★ <재림 때>도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는 성경 말씀은 또 동일하게 ‘사람’ 으로 풀어집니다. 상식입니다. (아멘.) / 그러나 재림 때는 신약 초림 때보다 차원을 높여 성자가 신랑으로 재림하여 신부로 준비된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신약 때 성자께서 아들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듯이, 재림 때는 아들에서 한 차원 높여서 신랑으로 재림하여 신부로 준비된 자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신부의 말씀’ 을 주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차원 높여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이 재림 때의 인구름입니다.

★ 성자 본체와 그 분체는 <신약 초림 때>는 자녀급 구름을 타고 오고, <성약 재림 때>는 차원을 높여서 신부급 구름을 타고 옵니다. 말씀도 차원을 높입니다. <신약 초림 때는> 자녀급 말씀을 가지고 오고, <성약 재림 때는> 차원 높여 신부급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고로 성약 말씀은 신약 말씀보다 차원이 높고 내용도 다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고 믿으며, 그 육신이 재림하여 다시 온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림한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 신랑을 맞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상8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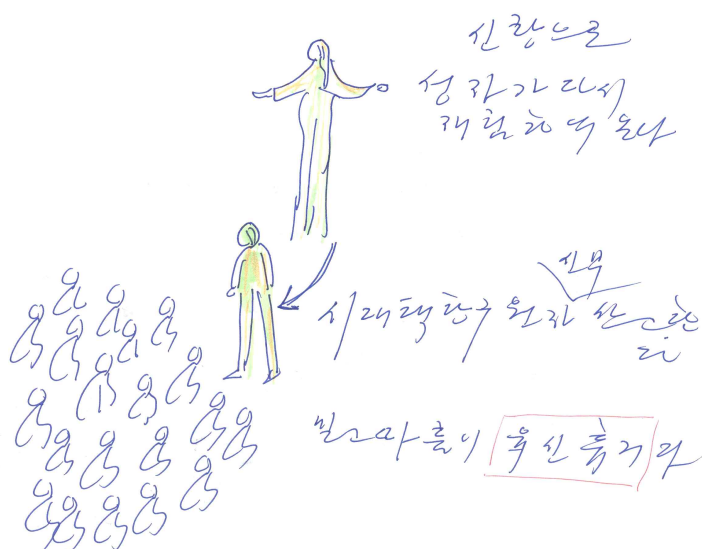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때도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온다고 하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올 줄로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 오셨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인간들의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는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성자는 신이라서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오셨어도 그 본체는 인간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았던 신약인들도 구약인들같이 재림 때는 자기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항상 자기가 믿는 자, 그가 올 것으로 알고 기다립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그러나 재림 때도 하늘의 성자가 재림하십니다. 성자가 다시 오셔서 땅에서 이 시대 사람 중에서 신부로 준비된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인들이 기다렸던 <재림역사>를 땅에서 펴 나가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육신 휴거>입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영상9 끝>



오늘은 ‘말씀의 가치와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성자의 역사의 진리가 최고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대화를 들어 보면 상대 여자가 자기 여동생인지, 자기 애인인지, 자기 부인인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말씀 내용>에 따라 상대가 자녀인지, 신부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X염색체를 주느냐, Y염색체를 주느냐에 따라 딸이냐, 아들이냐가 좌우되듯이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느냐에 따라 자녀급이냐, 신부급이냐가 결정됩니다. <신약 초림 때>는 성자가 ‘아들’로 오셔서 아들인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아들이 되는 말씀을 주셨고, <성약 재림 때>는 성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인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신부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상대를 자기 친구로만 만들려면 상대에게 절대 친구같은 말을 해 주고, 자기 애인으로 만들 사람이라면 애인에 해당되는 말을 해 줍니다. 이때 ‘애인’이라는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인에게 해당되는 말을 해 줍니다. 이와 같이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 결과가 좌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급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신약시대에는 자녀급 말씀을 주셨고, 성자가 다시 오신 재림시대부터는 신부급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그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신랑은 전능하신 성자이십니다. 성자께서 자기 육으로 쓰는 신부를 통해 이 시대에 사랑의 신부가 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육의 삶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우리 영도 하늘의 신부로 변화되어 하늘나라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자 본체가 영체로 재림하시는데, 이때 신부로 예비된 영들을 하늘로 휴거시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휴거되어 천국에 간 영들은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자기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 가게 했어도 그 육신은 천국에 못 갑니다. 고로 성자가 육으로 쓰는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육의 생을 다할 때까지 땅에서 성자의 신부로서 혼인 잔치 역사를 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성자가 육으로 쓰던 땅의 구원자가 죽으면,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도 2000년 동안 그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신약 역사를 펴 나갔듯이, 성약 재림역사도 그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영이 성자와 함께 땅에서 1000년 동안 역사를 펴 나가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함께 때를 따라 하늘의 역사를 펴면서 가게 됩니다. 시대 사명자는 구원의 사명을 받고 왔으니, 구원의 일에 대해 오죽 잘 알겠습니까? 성자는 그 육을 통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34년 동안 이 시대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 시대 사명자, 곧 성자의 육인 분체의 말씀을 들어야만 지금 이때가 성약 재림 때인지 신약 초림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체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성약 재림역사로 와서 성약 재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도 영도 주님의 신부로 변화됩니다.

★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⑦ 사과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해도 그 열매가 사과로서 더 좋게 변화되지, 사과가 복숭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복숭아가 되려면, 아예 복숭아나무에서 열려야 됩니다.

(사과는 주먹으로 표현, 복숭아는 손바닥을 펴서 표현)

★ ⑧ 이와 같이 신약역사는 아무리 자체적으로 차원을 높여도 육과 영이 아들급으로만 더 좋게 변화되지,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검지로, 신부는 엄지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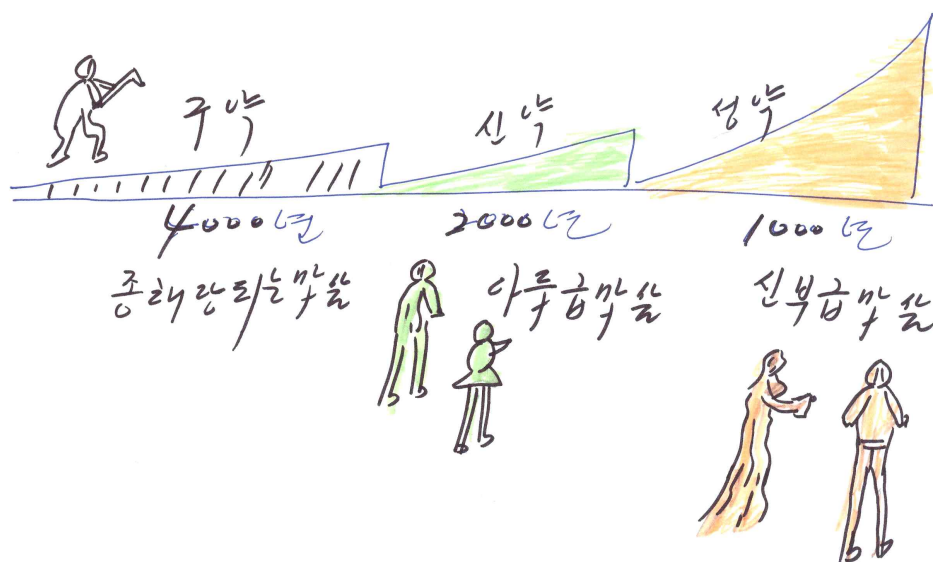
★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신약역사에서 신약 말씀을 듣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약 신부 역사로 와서 성약 말씀을 듣고 신부의 행실을 해야 됩니다. 성약역사로 와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말씀을 듣고, 성자 분체

를 100% 알고 믿어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그로 인해 육도 영도 예쁘고 멋진 하늘의 신부가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해 줘야 미련한 신부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하늘에서 오신 성자도 맞고, 성자가 보내신 육도 실감나게 현실을 보면서 맞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 우주가 창조된 지 약 137억 년이 넘었고, 종교 역사를 시작한 지 6000년이 넘었습니다. 세상 창조 이후, 종교 역사 시작 이후 최고로 차원 높은 말씀, 최고로 귀한 말씀, 주님의 신부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자가 다시 오심으로 해 주시는 말씀이며, 이 시대 성자 분체가 조건을 세움으로 성자가 그를 통해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한 보석 같은 말씀임을 진정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새 역사 새 인물입니다. 성약 말씀은 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영상10 끝>



이제부터 성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듣기 바랍니다. <영상11>

<성자의 말씀>

신랑 되는 나 성자가 나의 신부인 나의 육을 통해 ‘시대 신부의 말씀’을 주었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사랑함으로 너희도 모두 나의 신부가 되게 했다.

나의 말을 잘 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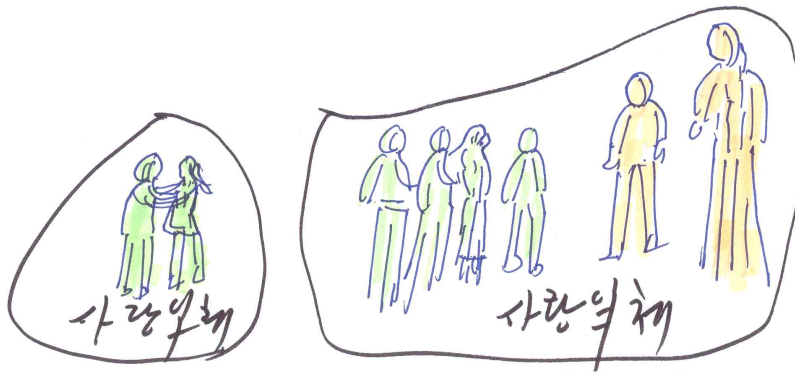
★ 지금은 재림시대다. 너희는 지금 성약 재림역사로 와서 나의 육을 통해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다. 고로 땅에서 육신 휴거를 이루었다. 그로 인해 너희 영이 나의 신부로 변화되고 있다. 어서 마지막으로 너희 영을 빨리 완성하여라. 100% 온전한 신부의 형체로 완성하여라. 나 성자 본체인 영체가 곧 재림한다. 죄를 완전히 회개하여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어서 온전히 회개하여 깨끗하고 멋있고 흠 없는 영이 되어라. 급하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자.

★ 전능자 나 성자가 나의 신부인 나의 육을 통해서 <재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는 나에게서 신부이지만, 나 성자가 나의 육으로 쓰니 너희 앞에는 기다린 구원자다. 내가 주는 재림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렸던 자들이 지금껏 기다린 말씀이니 얼마나 귀하냐. 종교 역사를 시작한 지 6000년 만에 주는 최고 차원 높은 말씀으로 이보다 더 높은 말씀은 없다. 곧 너희 육과 영을 나의 신부로 삼는 재림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겠느냐. (아멘.)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는 말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2>

★ 남녀가 한방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의 차원은 없다. / 이와 같이 이 시대는 나 성자가 ‘신랑’으로 와서 나의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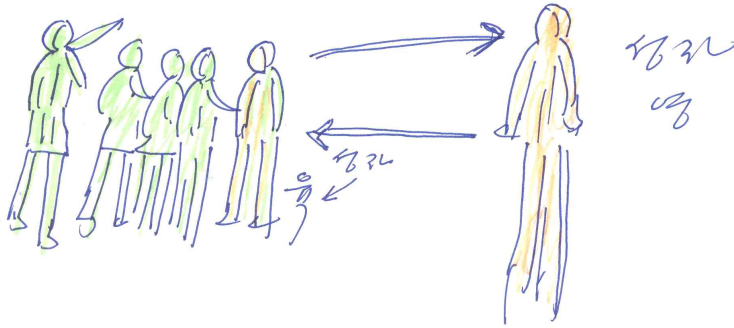
에게 ‘신부 말씀’ 을 전해 주어 너희에게 전하게 하여 너희를 나의 신부로 대해 주고 신부로 휴거시키는 순간의 때다. 종교 역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로 차원 높은 역사, 더 이상 없는 역사를 펴고 있다. 산꼭대기 극에 오른 역사다.



★ 극적 사랑의 역사이니, 너희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나를 사랑하며 내가 이 시대에 보내어 나의 육으로 쓰는 사명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와 일체 되어라. 이런 자는 육신이 땅에서 휴거를 이룬 자다.



★ 나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 짝 사랑이다. 너희가 시대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내가 나의 육으로 보낸 자가 누구인지 100% 알고 믿고 따라라. 그를 통해서 나 성자가 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나 성자를 근본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그 영이 하늘나라의 형체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면서 <영적 휴거>를 준비하는 자이며, 땅에서는 나의 분체를 통해서 <육적 휴거>를 이룬 자다. <영상12 끝>



(* 섭리역사에만 있는 ‘휴거의 비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3>

시대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는 땅에서 육신이 휴거된 자다. 그 육도 거듭나고, 그에 따라 혼도 영도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 영은 곧 다가오는 나 성자 본체의 영 재림 때 휴거되어 천국에 오를 자다. / 영이 휴거돼도 그 육은 천국에 못 간다. 고로 육은 나의 육인 분체와 함께 육이 생을 다할 때까지 땅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 시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간다. / 휴거되어 천국에 간 영은 천국에서 1000년 동안 나 성자와 함께 혼인 잔치 하면서, 자기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육신을 돕는다. <영상13 끝>

나 성자가 말하니 의심하지 말고 다 믿어라. 나를 신랑으로 맞으라고 나 성자가 너희를 축복하여 기독교에서, 이방에서 데리고 왔다. 전도자의 육신을 통해 내가 데려온 것이다.

나 성자가 나의 육으로 쓰는 자만 땅의 구원자다. 스스로 자기가 역사를 펴는 자는 나의 육이 아니다. 고로 그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 내가 네 선생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가문에 역사하고, 그 가문에서 선생을 낳아서 키우며 역사해 왔다. 걱정 말고 믿어라. 내가 역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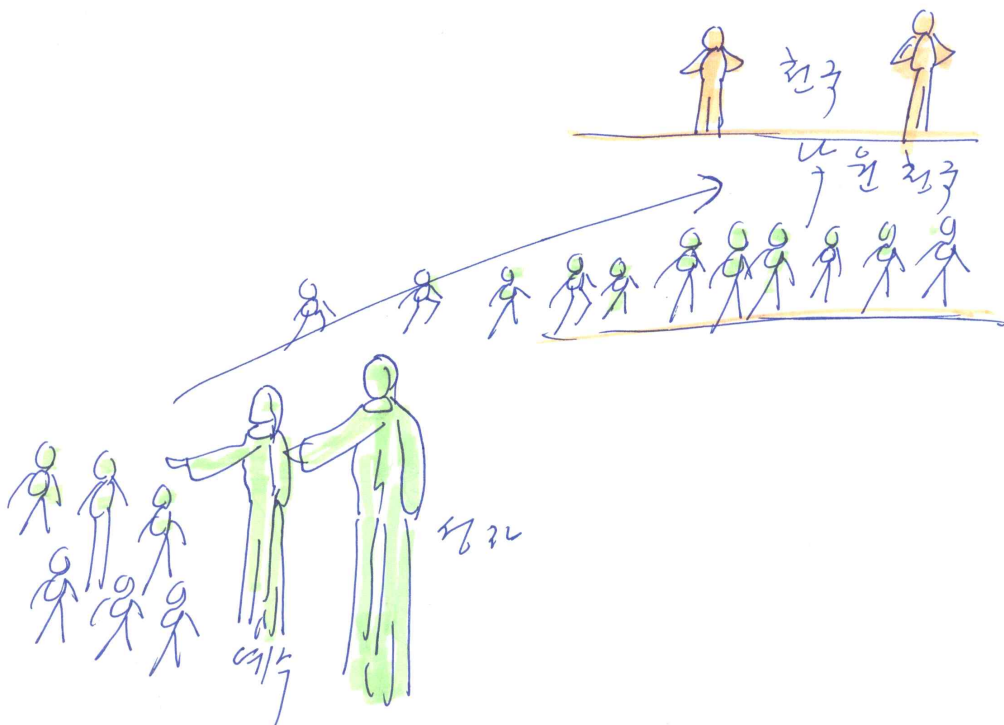
지금은 그는 나 성자와 함께 이 시대의 죄와 너희 죄를 지고 희생하고 있다. 그 희생으로 너희를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게 되었다.

모두 내 말을 믿고 따라라. 30개론은 나 성자가 내 육인 나의 신부에게 준 귀한 시대 말씀이다. 말씀을 귀히 여겨라. 그래야 사탄이 너희를 세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너희가 성약역사로 와서 나의 신부로 부활되어, 종교 역사 이후 최고로 차원 높게 변화되어 나의 신부가 되었고, 육이 땅에서 휴거를 이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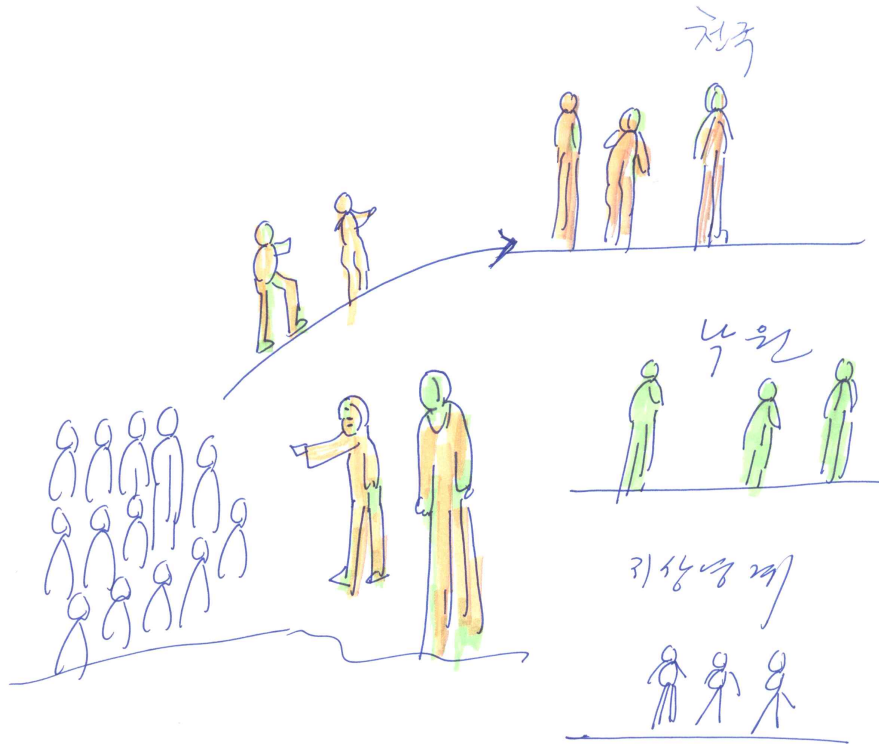
★ 신약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땅에서 육이 휴거되고, 영계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 영이 신부로 휴거된다. 시대 말씀은 항상 삼위 일체가 선포하기에 구시대인들도 이 시대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쫓을 때 믿고 행하면 온 세상 누구든지 하루 만에도 나의 신부가 된다. (검지로 하루 표현) 나의 신부가 돼야 신부로서 천국 성약성에 들어가게 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4>

신약 때는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쓰면서, 그를 통해 신약 말씀을 전했다. 그를 통해 신약 말씀을 들은 자의 육과 영을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낙원급’ 으로 구원했다.



이제야 신부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천국급 문’ 이 열렸다. 천국급 문이 열리도록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운 너희 선생은 나 성자에게 오는 천국 문이다. <영상14 끝>



이미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희 선생을 가르치고 길러 왔다. 이미 50년이 넘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나의 재림을 외치며 나의 재림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나 성자가 도적같이 나타나 신부의 조건을 세운 나의 육을 통해 시대 재림 말씀을 전하니, 모두 외면했다. 외적인 것을 보고 안 믿었고, 또 사람이니까 불신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는 세상의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했다. 6000년 구원역사를 펴 오면서 선지자 때는 선지자들을 쓰고 행했고, 사사 때는 사사들을 쓰고 행했고, 메시아 시대 때는 중심자를 미리 길러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며 그를 쓰고 행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미리 국가에서 길러서 경기에 내보내지 않느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왕이지 않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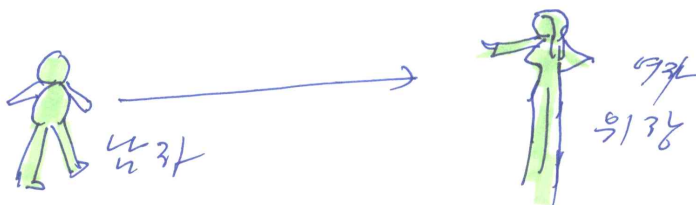
★ 나의 분체인 선생도 이미 나 성자와 함께 해냈다. 역사의 승리로 인하여 33년 동안 역사를 펴고 이제 ‘부활 역사’를 시작했다. 나 성자와 하는데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사탄이 승리하겠느냐. 선생은 나 성자를 알고, 시대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 이미 세상과 비진리와 사탄과 싸워 이겼다. 신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되는데 못 이기겠느냐.

★ 알면 이기고, 알면 나 성자가 재림했을 때 맞는다. 선생은 나의 재림을 귀히 여기고, 재림을 제대로 인식하고,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았기에 나 성자를 맞았다. 고로 늘 나를 부르지 않느냐. 나를 맞은 자만 부른다.

★ 하늘 구름을 타고 나사렛 예수가 다시 온다고 그릇되게 믿는 자에게 나 성자가 가겠느냐.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 선생은 바로 알고 나 성자를 맞을 때 맞았다. 먼저 다시 온 나 성자를 맞고 너희들에게 시대 말씀을 전했다. 너희가 그를 통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니, 너희 육도 나의 신부로 휴거되었다. 고로 너희 영도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섭리사에서만 전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진정 믿어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5>

다른 곳에서 섭리사 말씀을 조금씩 비슷하게 전한다 해도 혼돈하지 말아라. 다 여기서 나간 자들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다. 그곳이 핵심지가 아니다. 이는 마치 남자가 여자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나 여자야.” 하는 것과 같다. 끝까지 확인하면 여자가 아니니 서서 오줌을 싸고,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서 결국 남자인 것이 들통 나 망신당한다. <끝>



말세 때는 ‘참’도 ‘거짓’도 다 드러난다. 어찌 나 성자를 속이겠느냐. 때가 되어 내가 밝히 다 드러내어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천국 성 밖에 있다.” 하지 않았느냐.

계속 ‘시대 말씀’을 확실히 듣고, ‘나 성자 본체와 나의 분체’를 100% 믿어라. 나의 분체를 100% 믿어야 함은 내가 그를 통해 말씀을 주기 때문이다. 그를 안 믿으면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하여 너희 육과 영이 나의 신부로 변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나의 분체이며 나의 육인 선생이 너희와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중이라 또 그의 분체를 세워 나도 너희 선생도 행하니, 모두 그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7만 선교’는 나 성자의 계획이며 내가 축복했으니, 너희가 행하기만 하면 된다. 1차 하고, 또 2차 하고, 또 3차로 해 나가면 된다. 어서 지도자를 ‘시대 말씀’으로 양성하여, 생명들이 오면 교수같이, 학자같이 위력 있게 권세 있게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어 지혜로운 신부로 만들어 나 성자를 맞게 하자!

너희의 신랑 성자 주니라. 샬롬!

<광 고>

한국과 아시아 몇 나라들은 다음 주 주일이 추석 연휴와 맞물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너무나 멋진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이지만, 귀한 말씀 꼭꼭 챙겨 듣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큰 힘을 얻고 훨훨 날아다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주일설교는 한 달에 두 번 생방송으로 전하지만, 원하는 교회에 한하여 생방송 설교를 열어 놓겠습니다.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가 창조된 이래, 구원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로 차원 높은 신부의 말씀을 전해 주시어 우리 육과 혼과 영을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전해지는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이 시대 차원에 따라 그 육과 혼과 영이 신부로 온전히 변화되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